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짧은 말씀 묵상집 (25)]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

아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5-6, 현대인의 성경).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아내 "덕분에"입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아브람은
아내 '덕분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되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2:11-16,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얻는 교훈은, 남편으로서 아내 '때문에'라는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아내 '덕분에'라는 생각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을지라도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은 짝지어 주신 아내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현대인의 성경).

아내들은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인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 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1-5, 현대인의 성경).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는 남편

여자가 가장 교활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자의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었을 때

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남자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보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내에게 이끌림을 받아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2:16-17; 3:1, 6; 에베소서 5:29).

아내의 원망과 남편의 잘못?

사래가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거예요"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인 사래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때 사래는 아브람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므로 하갈이 사래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창세기 16:1-6, 현대인의 성경).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사람인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와 사래의 여종인 하갈을 생각할 때
사래의 말과 그녀의 말을 들은 남편 아브람으로 인해
사래와 하갈의 관계는 업신여김과 학대의 결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래가 자기가 남편 아브람에게 말해 놓고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아브람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양면으로 생각합니다:
(1) 사래는 자신이 한 말에 쓴 열매를 맛보므로 남편 아브람을 원망했고,
(2) 아브람은 사래의 말에 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따랐으니 그의 잘못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래 덕택에 ...

아름다운 아내 사래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자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오"라고 말했던 남편 아브람은(창세기 12:13, 현대인의 성경)
그랄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므로
사래 때문에 죽게 될 뻔 했다가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래 덕택에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들과 은화 1,000개도 받았습니다(20장,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라 할지라도 ...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진 것 같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무척이나 고생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해야 하나요?
(창세기 31:36,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시기라는 것은 ...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였던 야곱(창세기 29:17-18, 현대인의 성경)은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30:2).
그 이유는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지 못하자
이미 아들 넷을 낳은 언니 레아(29:32-35)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30:1).
이렇게 시기라는 것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 갈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뤄지기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

아내인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75세나 넘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30, 12:4, 13:16, 현대인의 성경).

이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18-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뤄지기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1)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창세기 34:5, 현대인의 성경)은

나중에 자기 말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35:22).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2)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여동생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데리고 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하몰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세겜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창세기 34:13-19, 현대인의 성경).
자기 형 에서를 속인(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아버지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과 하몰을 속였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처럼(29:20, 현대인의 성경),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디나를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요구한 할례 받는 조건을 이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34:19, 현대인의 성경).
이 모든 상황에서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기처럼 속이는 아들들과 자기처럼 속임을 당하는 세겜과 라헬을 사랑했던 자기처럼
자기 딸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을 보면서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이삭은 능숙한 사냥꾼인 맏아들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5:27-28, 현대인의 성경).
좀 흥미롭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아들을 좋아하는 아버지(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기에),
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이 아들하고 집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29절)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함께 예배하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은 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할 때(창세기 22:5-6, 9-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마가복음 1:11,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3:16)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이사야 53:6, 12, 현대인의 성경)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로 가셔서(마태복음 27:33) 함께 예배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로마 군병을 통해 저주의 나무(신명기 21:23; 갈라디아서 3:13)에
번제할 어린 양(창세기 22:8)이신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신 후
창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셨다(요한복음 19:34, 현대인의 성경)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소서'

(창세기 24:42, 현대인의 성경).

아브람은 자기 아내인 사래의 말에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래는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거예요"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이 사래의 말에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2-4; 16:2; 히브리서 11:18, 현대인의 성경).

아이의 울음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이의 울음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시며
그 아이가 성장할 때 그와 함께 하십니다(창세기 21:17-18, 20, 현대인의 성경).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였던 발람의 가르침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였던
발람(베드로후서 2:15, 현대인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4, 현대인의 성경).

안 좋은 인간관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소. ..."라고 말할 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5, 7, 14-16, 현대인의 성경).

두 딸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은 자기들의 아버지인 라반에 대해 남편인 야곱에게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 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버지와 딸들 간의 관계가 그리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15절)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의 남편인 야곱을 속여 품삷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으니

레아와 라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그녀들은 야곱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말했고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16-17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라반과 그의 사위인 야곱과 또한 그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의 안 좋은 관계도 주권적으로 사

용하셔서 결국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안 좋은 인간관계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색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창세기 4:5), 라반의 안색도 변하여 야곱에게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면(31:2, 5),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이사야 3:9).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여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 나귀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3:15-18,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요셉의 집안 일을 맡은 하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보고 무서워하여 ‘유령이다!’하고 소리쳤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4:24-27).

그리고 그 요셉의 하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창세기 43:23,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도 흥미롭습니다.

그 하인은 이집트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 말했을까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소알이 안전할 줄 알고 그리로 도망갔다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서 살았던 롯은 두 딸이 자기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어 결국 그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 자기들의 가족의 혈통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30-38, 현대인의 성경). 결국 두려워하던 롯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는데 두 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의 잠자리에 들므로 자기를 통해 두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유다서 1:4, 8, 10, 현대인의 성경).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길 ...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1-2).

앞으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

우리가 앞으로 사탄의 집단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9-10, 현대인의 성경).

야곱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했던 것일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를 것 같아 두려운데 어머니가 대신 저주까지 받겠다고 하시면서
형 에서의 제일 좋은 옷까지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입히고
별미까지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야곱의 손에 들려주는 아들 야곱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했던 것일까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무모한) 사랑에 못 이겨서 그리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을까요?
그 정도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대신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얘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입니다(창세기 27:12-20, 현대인의 성경).

양가 부모님께서 주님께 순종하셨고 지금도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했었는데(창세기 12:10, 현대인의 성경)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어서 이삭은 볼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습니다(창세기 26:1,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네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 사래 덕분에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도 받았는데
(12:16, 현대인의 성경),

아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랄 때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신 후

그 그랄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여 그를 축복하고

그 모든 땅을 이삭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양가 부모님께서 주님께 순종하셨고 지금도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

어떻게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더니
거짓말을 한 그의 아들 이삭도 축복하시사 농사로 인해 백 배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2:16; 13:2, 6; 26:12-13,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까요? (창세기 26:28)
어떻게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39:3,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위에 비신자들은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입에서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9-10, 현대인의 성경).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15, 현대인의 성경).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의 결혼 날에 신부 된 교회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입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요한계시록 19:7-9).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야곱으로 하여금 속이는 자가 되게 한 사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7:12-13, 현대인의 성경). 즉, 어머니는 아들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한 아들은
자기를 위해 대신 저주까지 받을 마음이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자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기에 그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다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 과정에 배후 조정자는 바로 야곱을 사랑하였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고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그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28; 27:1-8, 현대인의 성경).

맏아들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둘째 아들로 하여금 가로채서 받게 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한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은 ...

자기 남편 이삭이 말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어서(창세기 27:5,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게 한 장본인이 리브가는(5-30절)

자기 말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41절, 현대인의 성경) 전해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42절, 현대인의 성경):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하려고 한다. 애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 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 하겠느냐?"(42-45절, 현대인의 성경).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해선

남편 이삭이 그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에게 한 말만 엿들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 듣고 야곱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사랑은 그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25:23,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삭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네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네가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27:27-29,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우리 친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자기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창세기 31:1, 9, 현대인의 성경).
야곱의 친척인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39:1-3,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우리 친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과 함께하는 비신자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더욱 심각하게 하시사(창세기 43:1, 현대인의 성경)
야곱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46:3,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처럼(26:2-4) 야곱으로 하여금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사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지 않은 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피신시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27:43-44).
야곱은 그곳에서 20년간 있으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취하여 11남 1녀를 낳았습니다(29:30).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야곱을 번성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의 고향 그의 친척에게 돌아가게
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32:9, 12, 현대인의 성경). 이 약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그 때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70명이었습니다(46:27).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게 하시사(15:13, 현대인의 성경)
60만명이나 번성케 하셨습니다(민수기 11:21, 현대인의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들춰 내실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는 동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자기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들켰습니다(창세기 26:8-9).
거짓말을 하면서 오래동안 사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들춰 내실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두요!

얼마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때에 얼마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9-10, 현대인의 성경).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애 버린 것이 아닌가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 인줄 모르고
"우리는 모두 열 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2:8, 13, 현대인의 성경).
진정 그 "하나"인 요셉은 없어진 것입니까?
그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애 버린 것이 아닌가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인 야곱의 아들들로서 "모두 열 두 형제"인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중 한 사람인 요셉을 없애 버린 건가요?
혹시 그 이유가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알려바쳤기 때문이었을까요?
(37:2,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3절, 현대인의 성경) 혹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네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하고 조소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11절)

에녹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창세기 5:22-24,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6-7, 현대인의 성경).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해서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9,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이상히 여겨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일에 어울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함께 방탕한 일에 어울리지 않을 때 그 친구들은 여러분을 이상히 여겨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4,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 자리에 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 자리에 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요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뽐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를 잃은 별입니다
(유다서 1:11-13, 현대인의 성경).

여색을 몹시 좋아하는 것

호색, 탐색, 즉 여색을 몹시 좋아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베드로후서 2:1-2).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독자 이삭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 다가 아들대신 번제(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22:8, 13-14).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대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준비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요한일서 4:10).

역시 살아있는 믿음이란

헛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자기들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좀 팔라고 부탁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우리 묘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23:1-6,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역시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까지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넉넉히 갖추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5-8).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성도들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6-7,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 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시들도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5-7,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6, 현대인의 성경).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3-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쓸모 없는 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이요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6-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대로 선택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1-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1-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창세기 6:1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4:3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처럼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 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2-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를 보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16-17, 현대인의 성경).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내일도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뜻은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내일도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영에 들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13-16, 현대인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만 이뤄질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을 때
말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속임을 당해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는데
(창세기 27:1-29, 현대인의 성경),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을 때(48:10, 현대인의 성경)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기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했습니다
(14-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라고 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기의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속임을 당해 차남 야곱을 축복했었는데,

그 야곱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생각할 때 창세기 22장 25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은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장남 므낫세를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길 원했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그리 축복했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48:20, 현대인의 성경).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기원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만 이뤄질 것입니다.

온갖 탐심

가장 교활한 사탄은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습니다
(창세기 3:1, 6; 로마서 7:8, 현대인의 성경).

온전한 믿음 ...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습니다(야고보서 2:21-22).

왜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그의 10명의 형들에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의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고 말했다가 그들을 3일 동안 가뉘 두었다가 3일 만에 그들에게 "...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42:16-20). 왜 요셉은 말을 바꾼 것일까요? 왜 그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라고 말했다가(16절)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 (19절)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원래는 1명만 돌아가고 9명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1명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명만 돌려보내려 다가 1명만 남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

요셉은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꿈을 좋게 해석한 후 "당신의 모든 일이 잘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창세기 40:12-16,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범죄한(1절)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 후로부터 3일 안에 전직을 회복시켜 주신 반면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그로부터 만2년이 지난 후에 서야 옥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 두시고 하나님과 원수 된 죄 많은 우리는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꿈은 속히 행하셨고, 요셉의 꿈은 속히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애굽(이집트)왕 바로가 꿈을 두 번 연달아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하는데(창세기 41:32, 현대인의 성경)

요셉이 꿈을 두 번 연달아 꾸는 것(37:5-10)은 하나님께서 약 22년이나 걸려 서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꾸는 2개의 꿈의 의미(해몽)가 무어인지 몰랐다가 약 22년이 지난 그의 나이 39살이나 되어서(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됨(41:46) + 7년 풍년(29절) + 2년 동안 흉년(45:6) = 39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꿈은 속히 행하셨고, 요셉의 꿈은 속히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풍요롭던 시절을 다 잊히게 만드실 정도로 극심한 삶의 기근을 내려주(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삶의 기근이 너무 심하면 이전의 삶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인생의 기근은 풍요롭던 시절을 다 잊히게 만듭니다

(참고: 창세기 41:30-31,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풍요롭던 시절을 다 잊히게 만드실 정도로

극심한 삶의 기근을 내려주(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탕자처럼 궁핍함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까요?

(누가복음 15:13-20)

요셉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워하여(창세기 37:8) 그들 죽이려 다가(20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판(28절) 그의 형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족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appreciation)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삶의 기근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경험하는 궁핍함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45:5, 7)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2개의 꿈을 즉시 알게 하셨으면서 ...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꾸 2개의 꿈을 말했을 때

요셉은 "그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41:2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요셉이 17살 때 2개의 꿈을 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37:7-9).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2개의 꿈을 꾸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셉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그의 형들이나 아버지 야곱)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참고: 41:15, 현대인의 성경) 또는 설명하는 자(참고: 24절, 현대인의 성경)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그 2개의 꿈도 "한 가지 일"(25절, 현대인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것인데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곳에 보내셨습니다. ...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 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곳이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45:5, 7-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이 (2개의) 꿈을 꾀 것이나,

바로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꿈을 꾀 것이나,

바로 왕이 (2개의) 꿈을 꾀 것이나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사 결국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바로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의 꿈이나 바로 왕의 꿈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꿈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은 바로 왕이 꾀 2개의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41:25,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17살 때 꾀 2개의 꿈의 의미(해몽)가 무엇인지 몰랐다가 22년이 지난 그의 나이 39살이나 되어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됨(46절) + 7년 풍년(29절) + 2년 동안 흉년(45:6) = 39세]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2개의 꿈을 즉시 알게 하셨으면서

요셉의 2개의 꿈은 그 즉시 17살 때 알게 하지 않으시다가 22년이 지나서야

그의 나이 39살 때 알게 하신 것일까요?

요셉은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요셉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제들은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전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창세기 50:15-1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오빠 나사로로 인해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나사로)를 더이 두었느냐?"하고 물으셨고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33-35,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로마서 12:15).

욕망과 욕심

우리 속에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1-3, 현대인의 성경).

욕심!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14-15,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짓 선생들은 ...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짓 선생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며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28:1,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가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신과 아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26:34-35,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가 아내 리브가가 자기에게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27:46, 현대인의 성경)

자녀의 결혼 기도 제목에 있어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내가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25:22-23).

우리 말의 진실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10명의 형들로 하여금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애굽에 있는 자기에 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말이 입증되어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요셉의 형들은 그대로 했습니다(창세기 42:20, 33-34).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며 또한 우리 말의 진실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벰엘"의 의미)에 올라가서 ...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벰엘"의 의미)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참고: 창세기 35:3, 현대인의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죄를 범한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인데 ...

분명히 애굽 왕의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건만 그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말은 관원장은 3일째가 되던 날 바로 왕의 생일에 바로가 그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술을 따르게 한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당한 것일까요? (창세기 40:1, 5-22, 현대인의 성경) 왜 우리 모두가 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죄를 범한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화목케) 되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나무(신명기 21:23; 갈라디아서 3:13)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인 어른(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의 태도가 안 좋게 변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인 어른(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우리를 여러 번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장인 어른(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막으사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고: 창세기 31:5-7).

우리 영혼이 어느 누구에게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을 때에는 모든 식구가 우리를 위로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참고: 창세기 37:3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이 어느 누구에게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

부모로서 우리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요한이서 1:4, 요한삼서 1:4,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뿐만 아니라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5-7, 10-11, 현대인의 성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19-20,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두 번이나 '네가(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속이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물었고,
다른 한 번은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물었습니다(창세기 27:18, 32).
야곱의 답변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였고(19절),
에서의 답변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였습니다(32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던 아버지 이삭은(1절)
누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23절).
특히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기에 분별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25:24).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 누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3, 현대인의 성경).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셉인데
꿈을 두 번이나 꺾서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꾸짖었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창세기 37:3-11).
우리 형제가 우리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높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형제를 충분히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간직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1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1, 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할 때 ...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참고: 창세기 35:1, 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게 된 것은 ...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베드로전서 1:2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보기에 안전한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했는데

롯은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으니

도망하기 가까운 작은 성(소알)로 도망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그리 말한 이유는

천사들이 볼 때에는 산이 안전한 게, 롯이 볼 때에는

그 작은 성(소알)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했을 때 천사들은 롯의 요구대로 그 작은 성(소알)을 멸망시키지 않고

롯으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소알로 도망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9:17-22, 현대인의 성경).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보기에 안전한 곳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12-1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힘써 해야 하는 이유는 ...

우리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힘써 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이
몰래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유다서 1:3-4,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

우리가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14-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3,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아는 이유는 ...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아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아 이미 많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18, 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계속해서 ...

우리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히브리서 13:1-2).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주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모는 나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히11: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골1: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마6:33).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벰후1:10).

그리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10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그 자유를 악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자들입니다(요한복음 8:32).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악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5-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12, 16-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1, 23; 5: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빈 틈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간첩(창세기 42:9, 14,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사탄과 그의 종들은
우리의 틈을 엿보다가(42:12) 우리에게 어떠한 갈라진 틈
["무너질 것이다!"라는 도비야의 조롱에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임(느헤미야 4:3)]이나 허물이나 그릇함을 보게 되면
(다니엘 6:4, 개역한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창세기 14:15,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빈 틈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 그의 종들은 그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빈 틈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여서 얻은 재물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덧과 같다.”

우리가 속여서 얻은 재물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덧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고 사기까지 치면서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신8:18)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다 보니(17절, 현대인의 성경)

사람을 속이기까지 해서라도 재물을 얻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웃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야고보서 4:8-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후
자기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창세기 16:1-3, 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 را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7:16, 19, 현대인의 성경) 또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던 사라(18:10-1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했던 사라
(14-15절, 현대인의 성경)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21: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요4:24)은 영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롬16:26).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요일1:1-2).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9:1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이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8-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주목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롬1:2).

복음이란 예수님의 탄생(3절), 예수님의 죽으심(4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4절)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마1:18).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롬1:4).

그리고 사흘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4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바로 복음입니다(3-4절).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계14:6).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요일1:2; 참고: 롬16:26).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16절).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14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주목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왕상10:9).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므로(요일3: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간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맺으시므로(갈5:22)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케 하시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케 하고 계십니다(마22:37, 39).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63:3).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요일2:25, 현대인의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요3:16)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롬14: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란 히브리어 “카파르”와 헬라어 “카탈리게”를 번역한 말로 “덮다”, “제하다”, “허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인터넷). 성경에서 “속죄”란 할 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가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바로 “속죄제”(sin offerings)였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죄사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인터넷).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능력) 아래 놓였었습니다(롬8:2).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5:10)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화목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이신 “자기 아들”(8:3)을

그 속죄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김창세).

이젠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시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히9:12).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13-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옛) 언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걸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6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지만(요16:3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여깁니다(고후4:17,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롬8:18,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딤후2: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을 주목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24:10, 현대인의 성경).

그 분은 의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십니다(히7:2, 현대인의 성경).

그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시47: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가장 높으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빌2:7-8,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왕이시요(렘10:10) 영원한 생명(요일1:2)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저주의 나무(신21:23; 갈3:13)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죄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막15:26, 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막15:31-32, 현대인의 성경).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하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53:3-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낮아지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므로 말미암아(마20:28)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골1:14)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벧전2: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딤후6:15, 새번역).

정한 때가 오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본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님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계17:12-1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딤후1: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주목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시77:2).

야곱도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창37:35).

우리도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고후1:3)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후1:4)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6절)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7:6).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자들로 인해 애통할 때에 소망 없는 비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마5:4; 살전4:13-1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욘15:1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시119:50).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모든 의로운 법을 주목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과 법을 주목하여

그 말씀과 법을 사랑하므로(163절) 주야로 묵상하며(시1:2)

또한 그 말씀과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119:44).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목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전8:15,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웬지 우리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전6:3,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에게서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과 포도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소리가 그친 것 같습니다(사16:10, 현대인의 성경, 참고: 렘48:33,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만 것만 같습니다(욥1:12,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모든 즐거움의 소리가 그친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며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잠15:13, 17:22,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7:4,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겔21:10, 현대인의 성경).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은 다 순간적입니다(욘20: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사58: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시35:9,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105: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6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렘15:16,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교훈과 법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시119:24, 7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잠2: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사35:10,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51: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축복들을 주목합니다.

시편 21편 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사(1, 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영광이 한층 돋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성과 위엄도 주십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엡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일3: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지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다 없어질 축복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50: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스3: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시135: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단2: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시145: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68: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71:2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눅1:6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148: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창14:20,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119:17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03: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합니다(56: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71:1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63:3,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17: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41:13; 115:18, 현대인의 성경).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113: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146:2, 참고: 104:3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44:8, 현대인의 성경).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145:1,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상29:1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10절, 현대인의 성경).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라”
(복음서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고: 시103:1, 2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우리의 사랑은 잠깐 보이다가 일찍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랑을 주목하면서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사랑(God's eternal authentic love)이 아닌

일시적인 가짜 사랑으로 식구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우리 마음에서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마6:25, 31,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10:39, 현대인의 성경; 참고: 16:25,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리는 사람입니다(막8:3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행20:24).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창세기 42:11)
과연 그들은 "확실한 자들" 또는 정직한 자들["honest men"(NASB)]이었나요?
물론 그들은 "정탐꾼"(spies)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정직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약 20년 전인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의 나이 17살 때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려 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 놓고서 그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드렸기 때문입니다(37:20, 28, 31-32, 현대인의 성경).
가정 안에서도 정직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전에 그들의 할아버지인
이삭과 그들의 큰 아버지인 에서를 속였던 자요, 그들 또한 아버지 야곱을 속인 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대로 정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서로에게 문자나 카톡 메시지나 이 메일이나 전화 등을 해야 합니다
(참고: 요한일서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을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창세기 39:6-20)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 들었습니다(40:1-4).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수종 들듯이 우리 이웃을 수종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베드로전서 2:13-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3: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권세를 주목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30절)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난 소리는 “'느부갓네살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네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였습니다

(31-3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고 7년이 다 지났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그의 정신이 되돌아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34절, 현대인의 성경):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34절).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7:13)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14절).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주님은 이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요17: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영원한 권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뱉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합니다(요한계시록 3:15-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같이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신명기 33:29).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창세기 26:28, 2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5:19-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며 또한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릴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10-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주목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18-19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시68:34, 현대인의 성경).

모든 세대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145:4, 현대인의 성경).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히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수4: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십니다(엡3:20, 현대인의 성경).

그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이 크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21:1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의 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89: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신9:2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느1:1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고후6:7, 현대인의 성경).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1:2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주목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로운 계획”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비밀에 속한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주목하여

그 계획이 이미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뤄지길 기원하는 것입니다(마6:10).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엡1:4)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2:8)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시135:12; 요3:15-16). 그 영원한 선물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롬6:23, 현대인의 성경).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셨습니다(딤후2:1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롬16:26)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시139: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렘3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벧후1:11).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고후5:1,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엡3:1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시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사35:10, 51:11,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60: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 도다."

은화 20개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던 요셉(창세기 37:28, 현대인의 성경)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 은화 300개를 주었다(45:2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의 가치가 은화 20개 밖에 안된다고 생각했다면,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에게 은화 300개를 주었다는 것은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화 3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마태복음 27:3). 이사야 53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 도다."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려 주신 축복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되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은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뵈게 되었습니다

(욥기 42:5, 10, 12).

우리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웃게 하십니다

(참고: 창세기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전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으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창세기 50:18-21,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므로 동생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자기들에게 복수할 까봐

두려워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요셉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자신의 형님들을 소극적으로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그가 110세에 죽기 전까지 보살펴 줬습니다(22, 26절).

이렇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시편 34:8)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보살펴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괴롭힘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케하시사
우리를 괴롭히며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더욱 미워하는 자들은 ...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더욱 미워하는 자들은 심지어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속일 음모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참고: 창세기 37:4, 5, 8, 11, 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은 ...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4:12-13).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베델")에 올라온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임재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후손 가운데서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참고: 창세기 35:3, 9, 11, 15,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21-2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면 괴롭힐 수록 ...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면 괴롭힐 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번성하며 더 막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하지 않나요?

(참고: 출애굽기 1:7, 11-1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속이는 것도 사용하시사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여인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7년 동안 일했던 야곱은 결국 가서는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여인의 두 시녀인 실바와 빌하를 첩으로 두게 되어서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습니다(창세기 29:20-29, 30장, 현대인의 성경).

이것 또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3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28:14, 현대인의 성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는 것도 사용해서서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원대로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21,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8-9,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롯처럼 우리도 경건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6-8).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창세기 12:1-10,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분명히 수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엘리야에게 분명히 물이 마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7:1-3, 현대인의 성경).

결국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7-1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요?

잠언 3장 5-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우물가에서의 만남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에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을 자기의 고향의 친척들에게 보냈는데

그 때 그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러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24:1-28,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말한대로

외할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하라고 하여(28:2, 현대인의 성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갔는데(5절, 현대인의 성경)

들에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29:1-9,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말씀이 생각납니다(요한복음 4:5-30).

복음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 생각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 두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서 욕심만을 채우는 부요한 사람들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야고보서 5:1-5, 현대인의 성경).

웬만하면 집 안에서 말하지 말고

집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우리 배우자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얘기도 들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들은 얘기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도 그들이 들을 수 있기에
웬만하면 집 안에서 말하지 말고 집 밖에서 우리 배우자를 불러 다가 말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참고: 창세기 31:1, 4, 현대인의 성경).

유황이 타는 불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8, 현대인의 성경).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18-19, 현대인의 성경).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1-3, 현대인의 성경).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로써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꺾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10-19, 현대인의 성경).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11, 현대인의 성경).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창세기 33:5).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나요?

형 에서가 길을 안내하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또한 그가 자기 종 몇 사람을 야곱과 함께 머물게 하여 야곱을 돕도록 하겠다고 해서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말한 야곱은

비록 형 에서가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 줬지만

왠지 그는 아직도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10-15, 현대인의 성경).

과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일까요?

과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있나요?

(요한일서 1:9, 현대인의 성경)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20).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 있는 우리는 ...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 있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고
우리 속에 간직한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4-16, 현대인의 성경).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 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5-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종인 우리는 ...

아브라함의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자기 주인의 말대로 하기로 맹세한 후 주인의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이 사는 성(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에 있어서 택한 장소는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택한 시간(timing)은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향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마음 속으로 이 기도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가 낳은 브두엘의 딸이요 "지금까지 남자가를 가까이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향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대로 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아브라함의 종은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를 곧장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여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창세기 24:2, 9-4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종인 우리는

- (1) 주님의 말씀에 맹세코 순종해야 함과
- (2) 주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해야 함과

- (3)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잘 행해야 함과
- (4) 주님께서 자기의 길을 잘 인도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야 함과
- (5)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식이 없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는데 주님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브람은 주님의 큰 상보다 자식을 그리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1-6; 로마서 4:20-22,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21; 빌립보서 2:8,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길 기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4-6, 현대인의 성경).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못해
자기를 속여 몰래 도망한 사위 야곱을 추적하여 야곱을 따라잡았던 라반은
결국에 가서는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1:20-23, 28, 55, 현대인의 성경).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5-6,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12-13, 15,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여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 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9-12,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19-20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 합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은 전쟁가운데서 붙잡혀 가면서
자신의 풍부한 재산까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4:12, 현대인의 성경).
풍부한 재산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그녀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는 살려줄 것 같아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창세기 12:11-12, 현대인의 성경),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26:7,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는지 ... 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나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12:16; 26:1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했던 야곱(창세기 32:6-7, 현대인의 성경)은 형 에서가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주므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33:10, 현대인의 성경).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도망갈 준비를 했던 야곱인데(32:8,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또한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3:11-12, 현대인의 성경)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창세기 30:16,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유다서 1:16, 현대인의 성경).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12, 현대인의 성경).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악한 말로 주님의 종을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선교사님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접대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삼서 1:9-11, 현대인의 성경).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히브리서 13:2, 16, 현대인의 성경).

이삭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번제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22:6-9).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던 예수님께서(요한복음 19:17)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요한복음 1:29,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요한일서 2:2)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신명기 21:23; 갈라디아서 3:13)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알고 계셨습니다(요한복음 1:29, 현대인의 성경).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

몰래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온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유다서 1:4, 8, 현대인의 성경).

인생의 풍년 때 비축해 놓고, 인생의 흉년 때 절약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애굽)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총명하고 지혜롭게 7년 풍년 때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해서 그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창세기 41:38-39, 47-49, 현대인의 성경). 인생의 풍년 때 낭비하지 말고 비축해 놓고, 인생의 흉년 때 절약해야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2, 3, 5).

일의 대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라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네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고 물었고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시력이 약한 레아와 곱고 아름다운 라헬 중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29:14-20, 현대인의 성경).
친척 간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가 봅니다.
야곱은 일의 대가로 물질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을 때에 서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창세기 43:1-2, 13, 현대인의 성경).

떠나 보내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절).

이미 특별히 사랑하던 자식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마음 자세로

이집트로 보낸 것을 생각할 때

에스더가 한 말인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생각납니다(에스더 4:16).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최악 된 세상에 보내실 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나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잃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에베소서 2:1, 현대인의 성경) 살리시기 위해서 었습니다(요한일서 4:9).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5).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22-23, 현대인의 성경).

자녀 결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너는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천사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4:1, 4, 7, 현대인의 성경).
자녀 결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그들은 천천히 인도해야 합니다
(참고: 창세기 33:14, 현대인의 성경).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라고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하였는데(창세기 24:2-3, 현대인의 성경),
이삭도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8:1, 현대인의 성경).
우리 자녀를 누구랑 결혼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구랑 결혼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 선생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우리를 착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훼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1-3, 현대인의 성경).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있는데 마음 속에는 그 말씀과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8, 10, 현대인의 성경).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 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 현대인의 성경).

작별 인사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 창세기 31:28, 현대인의 성경).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떼를 ...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되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2-4, 현대인의 성경).

재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재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한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20, 현대인의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하셔서 ...

아버지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네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했는데 (창세기 28:3-4, 현대인의 성경) 그 축복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그로 12지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고 있지 않았나요?

실제로 딸들인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했다고 남편인 야곱에게 말했는데, 장인 라반은 사위 야곱에게 "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갔느냐?"고 말했습니다 (창세가 31:15, 26,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고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일했던 야곱을 속여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요? (6-7절, 현대인의 성경)

정말 신실하게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정말 신실하게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정말 신실하게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합니다
(요한삼서 1:5-6, 현대인의 성경).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교회 식구와 여러분이
어느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저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베드로후서 1:12-15, 현대인의 성경).

제일 괴롭고 힘든 속임 당함?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창세기 27장)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였었는데(31장)
그가 당한 제일 괴롭고 힘든 속임 당함은
아마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고
염소의 피를 적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온 요셉의 형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7:3, 31-34, 현대인의 성경).

족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32:10; 고린도후서 12:9).

종말론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종말론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16-17, 현대인의 성경).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워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재물을 쌓아 두면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부요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워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1-6, 현대인의 성경).

죄가 없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요한일서 1:8, 10, 현대인의 성경).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창세기 4:7, 현대인의 성경).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요한일서 2:12, 3:5; 에베소서 1:7).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다스림을 받으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가 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았고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그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다스림을 받으면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까지 합니다
(창세기 4:7-8; 요한일서 3:12, 15, 현대인의 성경).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한 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8, 현대인의 성경).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6,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7, 현대인의 성경).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주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6, 15-16, 현대인의 성경).

[참고: "니골라당 이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일곱 집사 중의 하나인
니골라에 의해 창시된 교회 안의 한 파당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니골라는 새로운 교리를 세워 그 교리를 따르는 우리들과 한 당파를 형성했는데
초대 교회에서 이들을 가리켜 "니골라당"이란 이름으로 불러 온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교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이나
이방 종교의 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버가모 교인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교리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 교리로써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 죄나 우상 숭배 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서 떨어트릴 수 없으며
이방인 중에 혹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어느덧 니골라당의 이 같은 이단적 교리가 들어와 교인들을 유혹하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인터넷)].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녀의 가르침의 꾀에 넘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0).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참고: 창세기 24:50-51,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6,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지껄인 말을 날날이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유다서 1:14-15,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

주님께서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7,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발 앞에 절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3:9,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 총리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자신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서로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 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과
말형인 르우벤이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42:21-24, 현대인의 성경).
나중에 그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습니다(43:3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은 그의 형 유다의 말을 듣고(44:18-34)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습니다(45:1-2, 현대인의 성경).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신(이사야 53: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히브리서 12:2).
그리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 주시고 기쁨의 띠를 띠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1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6:1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사탄의 깊은 비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깊은 비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3-2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7, 11-12, 2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일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또 우리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9,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9, 1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병상에 던지실 것이며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1-2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1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12, 현대인의 성경; 참고: 빌립보서 1:29).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선교사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삼서 1:7-8,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고?"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 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3-4, 8-1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둬낸 것은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베드로전서 1:23-2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에게 피로 갚아 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6:5-7,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떠날 때요 돌아갈 때일 수도?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이 앓을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 곧 네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31:1-3,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도의 변화와 들리는 말이 어찌면 그들로부터 떠날 때요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길이 참고 이기며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야고보서 5:7-10, 현대인의 성경).

죽이려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

꿈 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다가
결국 만형인 르우เบน의 권면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대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의 권면대로 루오벤이 없을 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창세기 37:18-28).
죽이려 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을 생각할 때
그의 형들의 죽이려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요셉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

비록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5-6, 8, 10, 현대인의 성경).

죽지 않고 살고자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애굽(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 쪽으로 내려간 아브람(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래(사라)에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 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창세기 12:10-13, 현대인의 성경)

그랄에 거류하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사래도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20:1-5,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밭에서 살았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우므로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26:6-7, 현대인의 성경)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지 않고 살고자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2-4, 현대인의 성경).

지키고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17, 현대인의 성경).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선한 생활과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자신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나타냅니다(야고보서 3:13, 현대인의 성경).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창세기 39:3-4, 현대인의 성경).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이서 1:1-2, 현대인의 성경).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요한이서 1:3, 현대인의 성경).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비멜렉 왕은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라고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9-1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므로 우리 자신들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대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참고: 창세기 24:49, 현대인의 성경).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 창세기 42:15).

진정으로 신임을 한다면 ...

진정으로 신임을 한다면 다 맡겨야 합니다(참고: 창세기 39:4, 현대인의 성경).

질투와 미움은 이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미움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창세기 4:8; 요한일서 3:12)과
살인적인 미움으로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결심한 형 에서(창세기 27:41)를 생각할 때
살인적인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사무엘상 18:9)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질투와 미움은 이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5:28, 15:19; 갈라디아서 5:19-21; 요한일서 3:15).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들을 접하므로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2, 8-11, 현대인의 성경).

"참으로 어리석도다"

사위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도망간 행위를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야곱에게 말한 장인 라반은
어째서 자기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한 야곱을 속여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자신의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31:6-7, 20, 26-28, 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는 모르면서
상대방의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천국과 같은 공동체 (Heavenly community)

천국과 같은 공동체(heavenly community)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Jesus' twofold commandment)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true fellowship)를 나누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the unity of the Spirit)을 힘써 지킵니다
(마태복음 22:37, 39; 사도행전 2:42-47; 고린도전서 1:10; 에베소서 4:3).

청개구리 그리스도인?

성경은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듣기는 더디 하고 말은 빨리 하며 함부로 성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야고보서 1:19, 현대인의 성경)

충분한 값을 지불하라!

비록 헛 사람들은 죽은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가족의 매장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에브론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그 밭과 굴을 당신에게 드릴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 장사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헛 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아닙니다. 내가 그 땅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받으시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 값은 은 4.5 킬로그램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대중 앞에서 말한 대로 은 4.5 킬로그램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두 나무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3:6-19,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도 오르난이 자신의 타작 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의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다.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후 오르난에게 그 타작 마당의 값으로 금 약 7킬로그램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22-25, 현대인의 성경).

이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값"(창세기 23:8; 역대상 21:24, 현대인의 성경)을 지불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은 ...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어린 양을 섬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14-15, 현대인의 성경).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석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므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집트(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창세기 41:53-57,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10명의 아들들에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42:1-2, 현대인의 성경). 요셉은 그의 형들을 정탐꾼들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했지만(10절) 요셉은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19-20절).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이집트에 온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의 생명을 보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18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 등
온 식구들의 생명을 보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45:7-8).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이 이집트와 같은 땅에 오셔서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 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 계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아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겹옷을
야곱으로부터 받아 입었던 요셉(창세기 37:3, 현대인의 성경)은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다섯 배나 음식을 더 주었습니다
(43:3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조명되어 있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구원자를 위한 특별한 은혜의 계시"(인터넷).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야곱(창세기 25:28, 현대인의 성경)은
레아보다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였고(29:18, 현대인의 성경)
또한 라헬의 소생이요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37: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되(신명기 10:15, 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을 때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결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창세기 37:3-5, 8,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우리는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충분히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함?

풍부함이 서로 다투게 만들 수 있습니다(창세기 13:6-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있는 자는 ...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있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행합니다
(요한일서 2:16-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11-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를 드리면서 혹시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는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7:17-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를 드리면서
혹시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8: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이 경우는 식구) 우리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창세기 31:7, 29).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4:13).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높이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창세기 41:38-40, 현대인의 성경; 참고: 사무엘상 15:14-15; 18:5, 30; 다니엘 6:3).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상관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창세기 39: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인해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인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심지어 식구라 할지라도 꿈꾸는 우리를 속이고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창세기 37:18-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여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재산)를
다 그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던 것처럼(창세기 39:4, 6, 현대인의 성경),
간수장도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22-23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친척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야곱은

그 일한 대가로 얻은 처자들과 함께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 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머물러 있게 하고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는 재산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 라반을 축복하셨고

라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창세기 30:25-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친척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8-11).

하나님께서 지시(명령)하신 그대로 ...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지시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이 있었던 하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1-5; 히브리서 1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6: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되 ...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의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들이 사는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 버리므로 인해
야곱은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그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창세가 34:25; 35: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이 난처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34:25, 현대인의 성경).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시편 139: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사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루에 곡식만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돈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을 텐데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돈을 도로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서로 쳐다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하고 한탄했습니다
(창세기 42:25-2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 (28절).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되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9-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과 옛 세상과 노아 시대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4-6).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4:16, 현대인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 용서받았습니다(골로새서 1: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4, 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창세기 37:4-5, 8, 11, 현대인의 성경) 이집트에 팔린 동생 요셉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 남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신 분은 그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45:4-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 (1)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도 사용하시되
 - (2) 비록 그들은 요셉을 돈 주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지만(37:28)
 - (3)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들보다 약 22년[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됨(41:46) + 7년 풍년(29절) + 2년 동안 흉년(45:6) = 39세 - 17세(37:2) = 22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사
 - (4)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즉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45:5, 현대인의 성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나님의 방법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때(타이밍)도 흥미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약 22년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신 목적을 말하게 한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되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져서(43:1-2,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는 이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8절, 현대인의 성경; 45:11, 현대인의 성경)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극심한 흉년이 5년 동안이나 남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왠지 극적인 순간(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형님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아버지 야곱 등 온 식구를 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20-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장로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35-36)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창세기 6:8-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은 ...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베드로전서 3: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이집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창세기 12:10, 현대인의 성경)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 엘리메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룻기 1:1, 현대인의 성경)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을 때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굶주리게 된 탕자가
결국에 가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11-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묵상 중에 ...

이삭은 저녁 묵상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랑하므로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4:63-6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내(남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창세기 3:17).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9-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8-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람"(뜻: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로 변경하시고,
그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시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책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 vs. 마귀의 영?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잠언 3:5-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으면

자기가 사냥해 온 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직접 못만들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부탁해서라도)

먹지 않고 죽을 썬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나오"라고 말했을까요?

그 때 왜 야곱은 배가 고파 죽겠다는 형 에서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원하는 죽을 좀 주지 않고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팔죽과 빵을 받고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5:29-34, 현대인의 성경)

에서는 팔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3:6, 8, 9).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18; 마태복음 5: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시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므로 그가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훔으로 매워 버렸습니다(창세기 26:12-1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시기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22-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몸소 신앙의 승리자들과 함께 계셔서 ...

하나님이 몸소 신앙의 승리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에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3-4, 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에 ...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14, 16-17, 현대인의 성경).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3-4, 현대인의 성경).

하늘에서 온 지혜는 ...

하늘에서 온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야고보서 3:17, 현대인의 성경).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과 "가장 좋은 농산물"과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45:18, 20,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현대인의 성경)
이집트 왕 바로도 히브리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창세기 43:32, 현대인의 성경).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32절).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였습니다(46:34,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32-34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는 것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여
아주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 또한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나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러

학대를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15:13,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나서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1:12, 20, 현대인의 성경)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학대받기 보다 대접받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단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있는 듯한 것인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기보다 대접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참고: 출애굽기 1:12)

한없는 복, 한없는 기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창세기 22:16-18,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로마서 8:32),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빌립보서 2:8)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21:6, 현대인의 성경).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히브리서 13:3, 현대인의 성경).

행함이 없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할 일이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17, 26; 요한일서 3:17-20, 현대인의 성경).

헛된 경건

헛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26).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14-15,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의 행위는 의롭고 우리 행위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12,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14, 23; 5:13-15, 현대인의 성경).

혹시 우리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지만

롯은 서둘러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창세기 18:15-16,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재촉하시면서 서두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대

혹시 우리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우리는 망설이는 것일까요?

혹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었다면 ...

혹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는 투병중에서 믿음으로 죄와 싸워 회개하므로 죄사함을 받고 병도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14-16).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 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었는데(창세기 27:41, 현대인의 성경), 약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32:6-8,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은 동생을 죽여 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고, 다른 한 사람은 형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약 20년 간격을 두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입니다.

홀로 남아 ...

홀로 남아 주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창세기 32:24, 현대인의 성경).

회개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고,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 불순종한 여자는 뱀을 원망한 것을 볼 때 부부가 불순종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엿봅니다(창세기 3:12-13). 불순종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를 원망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사람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9-12, 현대인의 성경).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며
자기의 영광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24-25, 현대인의 성경).